

■ 괴운(槐雲) 칼럼



언청계용(言聽計用)과 여측이심(如廁二心)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오늘은 언청계용(言聽計用)과 여측이심(如廁二心)의 고사성이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언청계용(言聽計用) 이란 ‘모든 말을 듣고 계책을 받아들인다’ 는 뜻이다. 이 말은 사마천의 사기(史記)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서 나오는 말이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믿음이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신뢰는 강제로 이뤄지지 않는다.

공자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 했다.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상하 관계에서도 신뢰가 있으면 능력이 배가된다. 위에서 아래로 믿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린 계획도 믿고 처리한다면 의욕이 충만할 것이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한 사람이 내놓은 의견을 받아들이고(言聽) 그대로 실행(計用)한다는 이 성어(成語)가 이런 경우를 가리킨다.

다음 여측이심(如廁二心)이란 ‘같은 뒀간(변소=便所)인데 마음이 둘이라’라는 뜻이다. 뒀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다급히 여기고 지나면 마음이 변한다는 뜻이다.

절(寺)에선 뒀간(측=廁)을 해우소(解憂所)라 하여 근심을 푸는 곳이라 하던데 생각해 보니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그것 급할 때 마땅한 장소는 없고 곧 옷에 묻힐 것 같은 긴박할 땐 세상에서 그것보다 난감하고 큰 근심은 없는데, 그럴 때 난 뒀간은 너무 반갑고 고맙고 구세주 같으니 불 일을 끝내고 나올 땐 그 마음이 짝 가시고 불결하고 냄새나고 빨리 떠나고 싶으니 같은 뒀간에 어찌 두 마음이 아니냐?

우리의 범인(凡人)들은 꼭 뒀간(廁)만 그렸는가? 인간만사(人間萬事)가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애걸복걸해서 도와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니 이것이 바로 여측이심(如廁二心)이 란 뜻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다! 어떤 목적을 이루고 처리해 내기 위해서 자존심 따위는 내팽개치고 아부 일색이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본래 자기로 돌아간다. 이것을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사 이래 인간의 도리로서 지켜야 할 다양한 덕목들이 강조되어 왔다. 그 가운데에서 신의(信義)라는 덕목이 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잘 맺고 훌륭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시되어 온 덕목이다.

믿음과 의리를 아우르는 신의(信義)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즉 사람 사는 세상을 온전히 지탱해 주는 뿌리와 같다. 그래서 신의(信義)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귀중한 가치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예로부터 신의(信義)를 저버리는 일들은 비일비재(非一非再)해 왔다.

“만는 도가에 발음이 찍힌다.”는 속담이 왜 생겨나겠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배은망덕(背恩忘德), 은반위구(恩反爲仇), 망은배의(忘恩背義) 등 배신의 잘못을 꾸짖는 말들도 많다. 이것은 배신의 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나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옛날부터 배신은 위대한 성현들이 항상 경계해야 할 죄악이었다. 옛 성현들은 ‘정서이견(情恕理遣)’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잘못이 있으면 온정으로 참고, 이치에 비추어 용서하며 분노를 풀라는 뜻이다. 이처럼 죄악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순리기도 하지만, 그걸 용서하는 것도 인간사의 미덕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나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늘님을 찾는 데서 비유된 말이다. 방실자거시심 래시심판이 상중귀심 이거시 (放失者去時心 來時心判異 上聞歸心 異去時)

대충이 이긴다.

-완벽주의 해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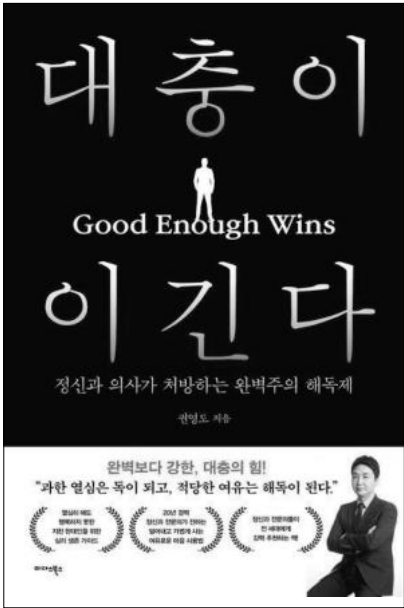
권영도 정신과 의사

‘대충’이라는 말은 흔히 게으르고 무책임하다는 뉘앙스로 쓰인다. 누군가 “대충 해.”라고 말하면, 성의 없고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국어사전은 ‘대충’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다. 어림잡아, ‘충분히는 아니지만 알추’, ‘자세하지 않고 대강’ 뜻을 곁집어 보면 무책임보다는 합리와 효율에 가깝다. 더 놀라운 건, 이 단어가 한자어가 아닌 순수한 고유어라는 사실이다.

나는 이 단어의 가치를 매일 목격한다. 진찰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무 열심히 살았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왔다. 시험 준비를 위해 밤을 새우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자식

을 위해 자신을 갈아 넣듯 살아왔다. 그런데 그 끝은 늘 같았다. 기쁨이나 성취가 아니라, 번아웃, 우울, 불안이었다. 너무 열심히, 너무 완벽하게 살려다가 삶이 무너진 사람들. 나는 그 얼굴들을 수없이 보았다. 나는 ‘대충’이라는 말을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의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세우고 싶다. 진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고, 사소한 것은 대충 흘려보내는 삶. 완벽주의가 강요하는 족쇄를 풀어내는 방법.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을 덮는 순간, 이렇게 말했으면 한다. ‘그래, 이제 조금은 덜 완벽하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 깨달음이 주는 해방감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의 시작일 것이다.

권행안 편집국장



서울지역종친회 사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유교 성리학의 대가이신 퇴계 이황 선생을 배향한 도산서원과 임진왜란의 시말을 기록한 징비록의 저자이신 서애 유성룡 선생을 배향한 병산서원을 참배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07시

♣ 장 소 : 경북 안동시 도산서원, 병산서원

♣ 교 통 : 전철 2.4호선 사당역 6번 출구 공원과 우리은행

옆 골목 관광버스 대기

♣연락처: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6년 6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 권순공의 온고지신溫故知新

토끼와 자라가 벌이는 풍자와 해학의 한 마당



권순공(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토끼와 자라가 등장하는 <토끼전>(〈토생전〉, 〈별주부전〉, 〈퇴별가〉, 〈별토가〉, 〈수궁가〉 등을 통칭)은 자라의 꼬임에 빠져 용궁에 갇던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여 간을 필요로 하는 용왕을 속이고 용궁을 빠져나온 이야기다. 판소리나 판소리게 소설이면서 동물물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점에서 ‘동물우화(fable)’이기도 하다.

왜 인간의 얘기가 아닌 동물우화가 필요했을까? 동물우화는 이미 고정된 동물의 형상을 활용하기에 인간의 여러 유형을 정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더러, 동물에 빗대어 이야기가 진행되기에 비판, 풍자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풍자가 힘들었던 예전에는 저 유명한 <이솝우화>처럼 권력자를 풍자하기 위해서 동물우화가 많이 사용되곤 했다. 해서 우화를 일러 ‘약자의 서사’ 혹은 권력구조를 뒤집는 ‘전복의 서사’라고 불렀다.

봉건체제와 이념에 대한 신랄한 풍자

그러면 <토끼전>은 어떻게 당대 사회를 풍자했는가? 작품에 등장하는 용왕은 무너져 내리는 봉건체제의 정점에 위치한 이기적인 왕을, 자라는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을 바치나 그 체제에 이용만 당하는 우직한 신하를, 토끼는 죽을 고비를 슬기롭게 벗어나는 지혜로운 민중을 각각 상징한다고 한다. 실상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밭 디디고 살고 있는 봉건체제나 이념을 풍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 왜 풍자가 필요했을까? 힘없는 민조들이 살아남기 위해 무능하고 부패한 봉건 권력에 맞서고자 했기 때문이다.

우선 봉건체제의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용왕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용왕이 나라 일을 보살피느라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주색(酒色)에 빠져 “이삼일이 지나도록 실컷 놀아 주었더니” 병이 난 것이다. 병든 용왕의 모습과 행실은 바로 무너져 내리는 봉건체제의 운명과 비슷하다. 봉건 통치자가 이런 모습이니 그 체제가 제대로 유지될 리 없다.

그래서 봉건이념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충(忠)’이 여지없이 우스갯거리가 된다. 충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데, 병든 용왕을 구하기 위해 토끼를 잡아온 신하를 뽑자 아무도 선포 나서지 않는다.

이렇게되면 올챙이는 배불러 경륜을 품었으니 보낼 만하다고 천거하자, 다른 신하들이 올챙이가 개구리 되면 “올챙이 개구리적 일은 알 수 없어”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마땅히 지켜져야 할 충신의 덕목들이 현실의 이해관계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는 풍자의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평시에 (땅이나 지위를) 봉(封)할 제는 모두 충신이나 환란을 당하면 충신 귀하외다.”는 말처럼 봉건시대 지고의 가치였던 충이 그 권위를 잃었음을 알 수 있다. 오죽하면 용왕조차 “우리 수국 수많은 고기 중에 충신이 없었으니 이 아니 원통한가!” 라고 한탄했겠는가?

더욱 흥미로운 건 국가대사를 논하고 충성을 들먹이는 조정중신들 모두가 다 비린내나는 생선(!)이라는 점이다. 그러기에 “세상에 나가면 밥반찬거리와 술안주거리”에 불과한 이들이 하는 중신회의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진다. 하잘 것 없는 생선들이 둘러 앉아 무슨 국가대사를 논하고, 충성을 들먹이는가? 해서 “조관들이 들어오면 ‘의관을 정제한 몸이 어로항에 끌려’서 향내가 날 터인데, 속 뒤집는 비린내가 파시평 [갯벌에서 열리는 생선시장]보다 더하”다고 한다. 조정 중신들에게서 나는 비린내는 바로 썩어빠진 조정에 대한 총체적인 풍자인 셈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과정에서 당시 지배층 내부의 모순이 자세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지배층 내부의 모습은 우선 문무(文武)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그 정황은 공부상서 민어와 대장교래의 대립에서 발단되어 간의대부 물치와 표기장군 벌떡계의 대립으로 다시 반복된다. 용왕도 이 정황을 보고 “불쌍한 호반(虎斑)들이 문반에게 평생 놀려 절치부심(切齒腐心)하였다가 이런 때를 당하여 큰 싸움이 나겠다.”고 할 정도다.

다음은 조선 후기 실재했던 세도가 ‘벌열(闊閥)’들이 등장한다. 작품에서 한림학사 갈따구와 간의대부 물치가 바로 이들이다. 그래서 “한림학사 갈따구는 이부상서 농어의 자식이요, 간의대부 물치는 병부상서 송어의 자식이라 저의 집 세력으로 구상유취(口尚乳臭)한 것들이 중요한 벼슬을 하여 일이 진행되는 모양도 모르고 방안 장담 저리 한다.”고 공격을 받는다.

“산군은 수령 같고, 사냥개는 세도아전이라” 봉건 이념이나 체제의 모순은 중앙정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지방통치 역시 이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작품에서 꿈의 입을 빌어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수탈의 참상을 당시에 빗대어 “지금에 비하면 산군은 수령 같고 여우는 간사한 출패사령, 사냥개는 세도아전, 너구리·멧돼지며 쥐와 다람쥐는 굶지 않는 백성이라.”고 증언하기도 한다.

이른바 조선 후기에 자행됐던 ‘중층적 수



탈구조’로 백성들이 수령과 아전들에게 이중으로 수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그 실상을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다.

이렇게 봉건체제를 풍자하다 보니 <토끼전>의 결말은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다. 토끼를 놓친 자라가 장렬하게 자결하는 이본(異本)이 있는가 하면, 아예 소상강으로 망명하는 이본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신선이나 화타(華佗)가 나타나 자라에게 명약을 주어 용왕을 살리는 이본도 있다. 봉건체제의 운명을 바라보니 입장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작품에서 토끼는 살아난다. 그것이 민조들의 바람이리라.

힘없는 민조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권력층을 비판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모색했던 것이다. 토끼와 자라가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전망을 불투명 하지만 토끼의 무사 귀환으로 작품이 마무리되는 것은 근대를 향한 역사가 민중들의 승리로 나아가야 할 것을 미약하게나마 보여준 셈이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이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그럴 듯한 감언이설로 공약을 남발하지만 지혜로운 토끼처럼 간을 뺏기지 않으려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서울산악회 제362차 정기산행 및 제31차 정기총회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62차 정기산행 및 제31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6년 6월 21일(일) 10시(시간 엄수)

♣ 집합장소 : 6호선 상월곡역 4번 출구

♣ 산 행 지 : 천장산 둘레길

♣ 정기총회 장소 : 그집(외대후문 앞)

직접 오실 분은 11시까지 그집(010-9171-3110)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회 장 권정찬: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혁규: 010-2240-4242

2026년 6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